

좌담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겸업」 무엇이 문제인가!

Permitting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Design?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건설회사는 건설업법에 의해 건축물을 시공해 왔다. 이같이 설계와 시공은 각기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업역의 구분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몇 해동안 대형건설회사들은 건설업의 경쟁력을 내세워 설계겸업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므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존의 상식화된 설계와 시공의 상호보완의 동반적 틀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

이같이 건설업체에서 주장하는 종합화 문제는 이미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와 함께 '우리 건축설계업의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는 사안임에도 최근들어 또다시 행정규제완화라는 정부시책에 편승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진입규제완화라는 형식으로 심의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건축계는 건축문화말살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이번 좌담을 통해 왜 건설업체가 설계권을 계속 요구하는지, 또 설계와 시공이 갖는 본질적 성격과 각각의 업무적 특성, 바람직한 상호 협력방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므로써 국민편의와 공익증진에 기여하면서 설계와 시공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일 시 / 1997. 7. 15(화) 14: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석자 / 최찬환(사회, 서울시립대 교수)

강기세(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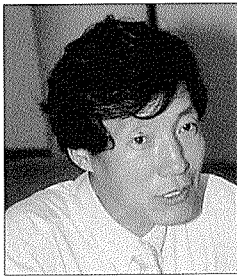
김광욱(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홍일(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법재(단국대 교수)

최동규(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찬환 _____ 바쁘신 중에도 여러 토론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좌담의 주제인 「건설업체의 설계진출」 문제는 이미 몇 년전부터 건설업체와 건축사사무소간에 끊임없이 뜨거운 논쟁이 돼 왔던 것으로 3년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입규제 라는 명분을 달고 건설업체도 설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더 심층적으로 이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설계업체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에 어떻게 하면 가장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계와 시공의 성격 규명부터 시작해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가 어떤 특성과 업역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이 실무분야에서 특색있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니만큼 실무적인 면이나 논리적인 면에서 좋은 토론이 있으실 줄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건축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되어 왔습니다만 때로는 문화예술의 논리를 들기도 하고 혹은 경제논리를 우선하기도 하는데 물론 복합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다음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기세 _____ 이 문제는 5년여전 제가 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할 당시 시장개방과 관련해 수차례 걸쳐 건설부에서 회의를 가질 때부터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가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된 내용을 보면 외국의 경우 특별한 규제없이 기업활동 주체자가 사회환경에 맞게 자유스럽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설계만 한다든지 시공만 한다든지, 겸업을 한다, 안한다 등의 문제는 그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기업활동 주체자가 스스로 판단해 할 뿐 우리처럼 제도화해서 묶어두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설계와 시공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규제나 제도화없이도 자연스럽게 조화있게 정착할 수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홍일 _____ 일부외국의 사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건축사가 건설회사에 고용 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의 흐름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건설회사는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기 마련이고 건축사사무소는 아무래도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을 가진 이들이 모인 조직이니까 조금은 문화적인 성향이 강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훨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약자보호' 라고 말한다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적으로 오리엔트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므로써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업체가 설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서서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기세 _____ 일본의 경우는 제도화하지 않고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홍일 _____ 제가 듣기로는 잘되고 있다가 보다는 오히려 설계하는 이들이 건설회사가 설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다시 개정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기세 _____ 일본에선 건설회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사무소가 거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추구하는 설계를 거의 안한다고 들었는데, 그루기와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자기네 디자인에다 다께나까 고무땡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더군요. 다시 말해 기술에 있어서 만큼은 건설회사가 우위에 있으니 설계사무소의 문화적인 디자인에다 건설회사의 기술을 합치는 것이 좋더라는 것이 일본에서의 경향이더군요.

일본에서 설계하는 이들의 말로는 조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건설회사는 절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계를 한다면 자기들이 매니지먼트하는 것에다가 전문성이 있는 설계사무소를 합쳐 프로젝트화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일수록 외부에서 끌어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설계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찬환 _____ 외국에서는 크레임이나 보험, 계약조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없는 분야는 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웃푸싱이라고 해서 바깥의 전문회사들과 파트너십 관계나 컨소시엄을 형성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수주산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설계의 업무와 시공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자가 와서는 건설업체가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로 분양 아파트 부분을 설계하겠다는 생각이 주로 많은 듯 하던데...

김광욱 _____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랑스나 독일같은 경우에 건설회사에서 건축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건설회사에 소속되어서는 건축사의 이름으로 설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은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전문직종에 대한 권위나 책임 따위가 분명하게 되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높은 지식을 인정해 주고 전문인 역시 전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전문직의 이름을 이용해 공익에 우선하여 영리활동을 취하는 것은 전문직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이름을 걸고 건설회사에 들어가 영업행위에 매달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와 시공의 업무적 특성을 보더라도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건축사가 설계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조형언어를 표출하는 일인만큼 어디까지나 자율성과 창의력이 보장된 창작활동이어야 합니다. 또 시공은 건축사의 설계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서 성실성과 정밀성을 기해야 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야 함에도 31개 대형 건설회사가 소속된 한건연은 시공회사도 건축사를 고용하면 자기네 기업이익을 위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재 _____ 한마디로 이러한 건설업체의 설계겸업이라는 것은 지금의 건축사자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자격을 가져야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건축사법이 실질적으로 부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사자격증이 자격과 면허라는 두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절대적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도 된다는 측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라면 건축사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축사자격증은 그야말로 개인의 질을 판단하는 보증서의 역할만을 하거나, 설계사무소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기준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건축사를 유지하는 설계사무소는 보다 더 안심하고 설계를 수행하여 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축사들의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건축사자격증의 효용성의 상실과 더불어 생존의 문제까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설계사무소가 얼마나 영세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건설업체라는 공룡에 맞서는 강아지의 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기세 _____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문화시켜 나가야 하



는데 우리 건설회사의 경우 문제점이 많은 게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회사를 이끌어왔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노동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건설을 했던 습성이 있어 이제는 아예 그것이 굳혀

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스케줄 관리, 코스트 관리, 기술·품질관리 등은 등한시하면서 순전히 경영적으로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지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설계도 돈벌이의 일종이 된다고 해서 자꾸 겸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자기네들이 그 분야를 깊이 있게 했다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같이 정말 신용도 좋고 그 회사가 집을 지으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집이 탄생된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의 다케나마 고무덴의 경우 설계 직원이 약 1,000명, 나머지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현장이 벌어지면 모두가 설계분야로 덩벼들어요. 그래서 샵드로잉하고 엔지니어링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설회사가 여태까지 샵드로잉이나 공사 뒷받침이 되는 드로잉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풍토속에서 생겨난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건설회사가 땅을 사고, 개발한다는 것도 다 그런 논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 튼튼한 집을 지어서 신용도를 높이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설회사는 아직 기구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찬환 _____ 설계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리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건물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창작행위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두가지를 혼동해서 이 모두를 설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 건설회사도 건축사를 고용해서 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기술개발하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작품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창작행위를 하는 것은 일단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공을 위한 설계 또는 시공위주의 설계 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설계는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 문제와는 차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다보면 시공편의를 위한 설계가 돼버려 아이디어란 부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불란서의 경우 건축사는 기본구상이나 기본설계를 하고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샵드로잉 계통은 건설회사에 가서 도면을 작성하도록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독일은 샵드로잉을 포함한 일체의 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건설업체에서 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요즈음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선 일본에서조차 실패로 인식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최동규 _____ 설계 · 감리 · 시공은 상호 Check & Balance, 즉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설계가 끝나고 현장에서 제3자가 시공을 할 때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만일 건설회사가 설계와 시공 모두를 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은 사라져 버리고 자칫하면 국민들은 다된 상품을 그저 선택만 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 경우 건축물은 단순히 구조물로 존재할 뿐 예술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이법재 _____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설계라는 것과 건설이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를 보는 일반 대중이나 관리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사제도도 어떻게 보면 건설의 입장에서 기술자들을 관리하고 체계를 세워야겠다는 당시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일종의 기술자로서 보는 시각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나 설계를 하는 건축사사무소

가 차별성이 없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영세한 사무소보다는 재벌기업이 하는 튼튼한 설계부서가 더 믿음직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건축의 국제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 왔던 경제발전 우선의 논리지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크게 가지게 했던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고 과거의 건설회사가 추구하여 온 것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현실이 그런 것들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신들의 노력부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은 그동안 건축설계를 믿어왔던 건축사들이 스스로의 입장과 위상의 제고에 등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을 문화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립시키는 데에 실패한 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점에 편승한 점도 운신의 폭과 스스로의 논리를 확립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보장되는 대형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하면서 보장된 작업과 전문인으로서 활동해도 되는데 어째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이냐고 이상히 생각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건축의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그 건축의 창의성이 중요한 건축의 요소이며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지 못한 스스로의 책임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최찬환 _____ 건축사사무소의 목표나 가치와 건설회사의 목표나 가치가 일치되면 좋겠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건축사사무소는 이익보다는 결과물, 즉 작품성을 중요시하기 마련이고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추구가 우선인 건설회사는 설계에 따라 시공이 좌우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흥일 _____ 미술분야도 자유경쟁체제에 맡길 수 있는데도 국가에서 보호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술가 중에도 돈과는 거리가 멀게 진정된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듯이 건축설계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기세 _____ 주위에서 보면 건설회사가 건

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넘겨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해서 직접 자기 주관하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일종의 주문주택 형태로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집을 파는 예가 되겠죠.

미켈란젤로가 집을 지을 때 설계자와 시공자가 따로 있지 않았듯이 원래부터 조직상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직접 시공에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공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또 설계사무소가 불황 타개책으로 아키텍트가 시공까지 관할하는 쪽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업무의 구분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건축사 사무소도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건설회사에 설계를 허용한다 손치더라도, 아뜨리에적인 설계사무소를 하라고 해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도 암암리에 대기업 계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하라고 해도 그 중 상당부분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 설계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돈만 챙기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광욱 _____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 관계된 모 경제관료의 말을 듣다보니 건축물을 상품으로 보고 있더군요. 단순히 경제논리로 설계를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든, 건설회사가 하든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견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 건축물은 한 시대의 문화적 결집체로써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건설회사가 주장하는 아파트나 분양건물이 아무리 자기시공공사라 해도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그들은 TV나 냉장고처럼 상품으로 취급하려고만 합니다. 경제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의 공공성이라던가 공익성이라던가 국가재산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강기세 _____ 일부에선 설계가 부실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전체 하자 중 설계하자가 오십 몇 퍼센트, 시공하자가 사십 몇 퍼센트라며 오히려 설계 때문에 부실한 건축물이 나오고 있다고 데이터를 밝히고 한건연에서도 이를 이유로 설계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욱 _____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엉터리인 것이 조사대상이 대부분 건설회사여서 자기 잘못된 인정 안한 채 설계쪽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

다.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영세성 운운하는데 사실 그들 이 설계를 한다해서 서울 외곽의 소규모 주택까지 그들이 자청해 하겠습니까?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을 때 수도권 번두리에서 주택난 해결에 공헌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소규모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들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기동안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도 도시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이법재 _____ 실제로 건설회사가 자체의 설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말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다는 것

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을 그 계열의 설계사무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든, 하도급을 주던간에 이미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무언가에 이해득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건설



회사가 건설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요는 물질적인 객체를 통한 이익과 건축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공간의 질에 대한 확고한 비물질적인 풍부함의 추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과 그동안에 보여졌던 건설담당자들의 양태로 미루어 건축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의 추구하고 발견의 방법이 건설회사들의 '설계 검역'으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강기세 _____ 건축사의 자질문제와도 결부 되겠지만 법 이전에 건축사 자신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건설회사가 집을 지었다길래 가서보면 그중 상당부분에서 여러 형태의 하자들이 발생하고 설계도면 역시 조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사 개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일 _____ 그 문제는 건축사를 배출해내는 건축교육의 질을 높인다거나 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건축사사무소의 영세성을 이유로 건설회사가 설계를 검역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최찬환 _____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당장 건물을 짓는 것은 상

부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경제성의 논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경제성에 의한 필요보다는 문화논리가 강하게 일게 되죠. 예컨대 불국사 석굴암은 그 시대엔 당장의 필요성에 의해 건축되었겠지만 후세엔 그보다 훨씬 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듯이 건축물을 단순히 경제성이나 사업성으로만 보는 시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껏 '양' 위주의 정책을 펴온 탓에 '질'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낮았습니다. '질' 위주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내지는 전문성, 윤리성 등이 대단히 중요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계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체내에서 기술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거리가 매니지먼트 위주로 하게 되면 수주산업으로 전략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주는 시스템을 설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의 일정부분을 자신이 소화하고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시공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 것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굳이 비전문화된 생소한 영역인 설계분야에 진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강기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대 건설회사 중에는 '설계검열'을 반대하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 건설회사의 경우 조직내에 설계사무소를 두면 자체 설계사무소 때문에 오히려 더 훌륭한 설계 파트너를 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동규 그에 대한 실례가 아마 D그룹이 S건축사사무소와 관계를 끊고 Free 한 상대로 돌아선 것이 될테죠.

김광욱 [그룹의 경우도 실제 설계사무소를 가져서는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In House Architect'를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그보다는 특정 프로젝트에 전문성을 지닌 건축사와 조인트 벤처해서 일을 할 때 더 큰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건연이 '설계검열'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아니라 자기시공공사로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를 줄이겠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찬환 주택공사의 경우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공은 아파트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물량이 엄청난데도 지난해까지 자체내에서 설

계를 하다가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근 들어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경쟁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자사 설계조직을 현상설계에 참여시키는 거죠. 사실 아파트에 있어 주공만큼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 전문화된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현상설계란 방법을 택한 것은 보다 우수한 안이 경쟁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질 좋은 설계가 나오게 되니 자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건축설계의 질적인 향상으로 건축문화발전에도 기여하게 된거죠.

제가 보기에 건설회사가 설계조직을 갖게 된다고 해도 전혀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어진 물량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 하도급을 주는데 설계까지 소화해낼 리가 만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건설회사가 설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나라 시공을 수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계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설계권을 갖게 되면 물량이나 내역에 대한 정보, 건축주와의 관계 설정 등이 다 되어나오기 때문에 시공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판단에서 시공의 도구로서 설계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자체내 설계조직을 둘 수 있는 대형건설회사와 그렇지 못한 중소건설회사 사이에 불공정 계임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강기세 최고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만일 건설회사가 수주를 하면서 설계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장 설계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게 되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찬환 건축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싱가포르나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설계자가 건설회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복수로 몇 개 회사를 추천하는 거죠.

강기세 건축주가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도 있습니다. 건축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의 계약에 참여해서 건축사의 날인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으로 인한 법정공방이 있어도 계약 당시 변호사가 참여한 예가 거의 없고 변호사 역시 건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건축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욱_____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지금의 건설회사 설계겸업 문제가 과연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최찬환_____ 공정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공정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죠. 예컨대 설계권을 건설회사에 주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시공자와 마주했을 때 반드시 건축주가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람의 보호 속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설계와 시공이 나누어져 있어 그것이 가능하지만 건설회사가 설계권을 갖게 되면 시공회사에 대한 건축주의 대응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공정' 이 될 수밖에 없죠. 공정위가 진입규제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보아야 하는데 지금은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욱_____ 미국의 경우 소속이 어디건 건축사 자격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고 일본도 일부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들 나라의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들의 의식이란 것이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맡기는게 이익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시간까지 체크해 상담료를 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 듯 전문직종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비용지불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기본설계를 10군데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본설계를 다했다해도 건축주가 싫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사회성숙도가 이런 정도인 우리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설계분야의 진입규제를 풀어봤자 절대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나마 지금은 건설회사가 탄키나 자기시공공사에 한해 설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제한없는 설계겸업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강기세_____ 그것은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각종 개발사업이 많다보니 건설회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물량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동규_____ 사실 그동안 협회가 보호도 받

으면서 위상이 높아가다가 삼풍사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권익도 잃어가는 것 같고... 대기업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애긴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입료 수입도 얹어먹고 소설가·작곡가도 고용해서 일정시간 창작활동을 하도록 해 히트하면 그 수입도 챙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 업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화하게 되지 않을까요.

강기세_____ 과거에 비해 설계용역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욕심을 내는 것 아닐까요?

김광욱_____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일년에 설계용역시장 규모가 약 1조5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개 대기업 일년 수주 물량은 아마 이를 크게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겁니다.

최찬환_____ 어느 상위 랭킹의 대기업 회사의 수주액이 7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6천 5백여 건축사가 5만여 직원과 함께 중소기업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선수도 체급에 따라 경기를 벌이듯 설계용역시장을 놓고 대형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간에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란 것은 결국 공정한 게임속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세_____ 제가 보기에 수주를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인력의 이동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나 보조원들이 설계를 해 왔으니 수주를 어디에서 하든 결국 건축사와 보조원이 설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수주한 곳을 쫓아 인력이 이동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설회사로 설계인력을 빼앗기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뻤한 일입니다. 또한 설계사무소의 외형이 점차 커지고 점차 기업화 되다보니 건설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찬환_____ 제가 보기에 돈을 벌기 위해 설계권을 주장한다기 보다는 설계권을 갖음으로써 파생되는 효과를 노려서인 것 같습니다. 시공물량이 설계비의 5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공까지 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기세_____ 외국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끼리의 대화보다는 제3자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건설회사의 '설계진출' 문제도 당사자간의 대화보다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려 들기 보다는 제3자의 개입없이 이해 당사자간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욱 _____ 당사자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것은 94년 이전부터 건설업체들이 한건연이란 조직을 통해 집요하게 기획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묻고 늘어져 감정적으로 격앙된 탓도 있지만 그동안 몇 차례 토론회 등에 한건연 대표를 초빙했음에도 결국 단 한차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설계와 시공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강기세 _____ 굳이 건설회사가 설계를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기본설계까지만 건축사가 하고 실시설계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워킹드로잉단계에서부터 문호를 개방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지니어링이 보완될 수도 있고 각각의 단계가 고루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재 _____ 건축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등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또는 설계의 과정을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 설계는 하나의 일관된 작업입니다. 사실 감리를 설계자의 손에서부터 분리시킨 것도 저 개인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설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성과 창의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상 특질로 보아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의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전문적 인력의 지원이 절대적 일 수도 있지만, 설계를 분업으로 하는 이른바 분업 방식은 설계에 대한 원천적 개념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일 _____ 제 생각엔 건설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기 때 문에... 허가 내는 것까지 건설회사가 하게 되면...

강기세 _____ 허가를 두 개로 나누는 제도를 만들어야겠지요. 허가를 DD단계까지 ...

김광욱 _____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전문가에 대한 예우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인정받는 사회라면, 기본설계라도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강선생님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설계조차 올려져

먹기식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건설 회사가 부실공사의 원인을 설계부실에다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부실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도면 하나를 갖다놓고 수십개 업체가 들어와서 도면만 쳐다보고 가서는 입찰을 해서 소위 찍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따가는 것만 봐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도면을 받아다가 공사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익이 얼마 남는지 세심하게 계산해서 입찰해야 되는데도, 일단 대충 공사를 따서는 이익이 날지 손해를 볼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싸게 공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건설회사가 수주할 때 쓰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명한 수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비용 역시 부실공사를 불러오는 원인일텐데 그런 건 덮어두고 설계쪽에 책임을 미루면서 경쟁력 운운하는 건 이해 못할 일입니다.

강기세 _____ 제 생각은 아까도 얘기됐듯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치부까지도 인정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덮어둔 채 일방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저 파워게임으로만 치달아선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죠.

최찬환 _____ 건축을 하는 당사자간에 대화나 토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지 건축 밖의 제3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건축 3단체도 있고 건설관련 단체들도 있으니 이들이 모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게 필요합니다.

이범재 _____ 여하튼 건설회사들의 '설계검열'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설계자, 즉 건축사들중 많은 사람들이 이 건설회사들에 예속 됨으로 해서 일어날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설계라는 것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완수준으로 떨어진다든 것입니다. 둘째는 결국 설계가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한 보다 더 물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문화적 가치의 추구가 말살될 것입니다. 셋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건축사자격증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절하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용을 당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넷째는 건축이라는 문화적 작업이 상실되어 건축이 문화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 망각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건축이라는 의미가 상실되어 외국의 설계자들에게 경쟁할 건축사가 없는 황금의 설계시장을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은 거꾸로 설계시장의 무방비개방이라는 절대적인 고비에 처할 것입니다.

최동규 제 나름대로 건설회사가 왜 설계검역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자기네 업역속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겠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계나 시공이니 감리니 하며 복잡한 걸 귀찮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통째로 건축물이란 제품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시공자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누가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또 주로 관공서의 입장이 되겠지만, 삼풍사고 이후 설계·시공·감리 중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책임소재를 규명하다보면 그 책임 소재가 희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 감리를 한군데에 맡기는 것이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쉽지 않겠느냐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관공서 역시 건설회사의 논리에 다소간 가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획·계획·설계 등의 분야가 굉장히 약합니다. 일반 국민 역시 패키지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문화된 조직의 협동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한 조직이 수직적 일관성만 가지고 각각 다른 업무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계약제도문제와 보증문제, 이를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굳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정비된 연후에 개방화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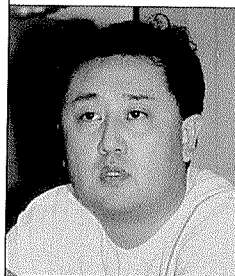
이법재 건설회사에서는 '설계검역'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능하고 가능성 있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사의 양성과 보조 그리고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내에서 설계를 하여 손쉽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목전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영세한 설계자들을 도태시킬 것이고, 그 다음의 그 자리는 역시 외국의 설계자들이 우리 건축시장에 도도히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그러한 일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 점에서 국내설계자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어려운 상대인 외국건축가들과 상대하는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군요. 감리전문외국회사

가 이미 여러곳에 진출해 있는 것도 이제까지의 시공의 부실화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동규 저는 한 10년전부터 사무실 설계원가라든지 이것저것을 다 계산해서 따져 보곤 하는데, 애써서 일해 놓고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재벌건설회사가 자체에 설계사무소를 갖는다는 때 숫자에 근거해 설계자의 인건비 등을 놓고 따져 봤더니 제설계비를 다 쓰고도 별로 남을게 없을 것 같더라 계산이 나오더군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익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겠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하청을 주어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하청으로 인해 설계의 질은 떨어지고 건축사만 더욱 불쌍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욱 얼마전 이내흔씨를 회장으로 CM연합회란 조직이 새로 생겼는데, 대형 건설회사 위주로 CM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CM의 근본취지는 그와 다른 것으로 압니다. CM에는 크게 에이전시CM과 GMP CM이 있는데 에이전시CM의 경우 CM을 하는 주체가 건설회사나 대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야말로 능력있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면 자기 CM사무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겠다는,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GMP CM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CM의 안정성과 독립성, 공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에이전시CM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CM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해 설계사무소도 CM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CM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되면 설계사무소도 CM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의 CM이란 것은 변질되어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홍일 시공이든 설계든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유경쟁을 벌이도록 해 좋은 건축물을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건축사를 배출해 내는 제도를 잘 정비해서 우수한 건축사를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건축사교육은 어떻게



게 시킬 것이며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많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외국의 경우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파트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들고가도 해결이

되니까 개발할 수도 있다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광욱 _____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업우리나 분위기가 건축사가 전문인으로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환경과 선진외국의 환경엔 분명 차이가 있는데도 무작정 규제를 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기세 _____ 사실 규제완화정책은 WTO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국제화·개방화를 내세워 설계용역업 진입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찬환 _____ 사실 '인 하우스 아키텍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 시공조직에 전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용된 생각'만을 불러올 뿐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의한 독립된 조직이 아닌 수직화된 조직구조속에서는 설계 인력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강기세 _____ 건축사가 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의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이 되겠죠. 종합병원의 경우 제3자, 즉 투자자가 병원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고용되어 일하지만 어떤 분위기 속에서 환자를 돌보느냐가 중요하며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를 겸하지도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죠. 종합병원에서 약까지 만들면 매일 같은 약만 쓰게 될텐데 환자들이 민겠느냐는 것이죠.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은 될 수 있어도 투자자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진정한 창작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김광욱 _____ 재벌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안주하려 하기 때문에 훌륭한 창작물을 빚어내기 어려운 반면 소규모 아뜨리에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경쟁에 뒤지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건축사를 고용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잘못된 논리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업역을 침범 당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야 건축문화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요구하는 턴키나 아파트공사의 설계와는 전혀 무관한 대다수의 소

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건설회사의 경제논리에 의한 설계진출을 결사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만 현재 협회는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12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건축정보센터를 설립, 각종 건축설계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회원 뿐만이 아니라 건축관련업계 전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공과정에서의 경험을 설계에 반영할 수 없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설회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회 내에 건축사 뿐만이 아닌 설계, 시공업계 관계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 등을 구성해 여기에서 나온 노하우나 자료 등이 정보센터의 여러 통신 채널을 통해 각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에까지 전달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범재 _____ 건설회사의 설계검열에 대한 건축사들의 대응방안은 결국 두가지로 집약될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에 대한 명백한 대응입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아닌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한 대응을 함으로써 명확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중적인 알리를 통한 대응입니다. 결국 이것도 명확한 근거와 외국의 선례와 건축의 문화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문제에서와 같이 밧그릇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는 적극적이지만 논리적인 알리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환 _____ 실패를 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는 처음부터 걸러서 우리 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오늘 논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별도의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업역을 명확히 하고 상호 체크와 발란스의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설계를 한다 손치더라도 계약제나 보험제도 등 사회전반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서는 큰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진입규제 완화에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문화된 룰이 마련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진입규제완화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링의 테두리도 정해 놓지 않고 경쟁을 하라고 하면 무슨 게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회원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질강화를 해야 할 것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고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